

등고비·까막딱따구리·물총새·황새 ...

10년간 우리 숲에서 만났던 새 이야기



우리 새의
봄·여름·가을·겨울

김성호 지음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자연의 섭리는 시계처럼 정확해 산하에 봄 꽃이 피어나고 새소리가 들린다. 일반적으로 봄의 전령사를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침 일찍 들리는 새소리로 봄이 왔다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 박사’ ‘딱따구리 아빠’ ‘딱따구리에 미친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김성호 서남대 기초의학 교수가 펴낸 ‘우리 새의 봄·여름·가을·겨울’에는 새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10년의 기록이 담겨 있다.

저자는 식물생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방의 신설 대학 개교 첫해 부임한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대학의 현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형편이 아님을 깨닫고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눈을 돌린다. 그곳을 찾아들면서 안에 깃들인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게 된다.

저자가 본격적으로 새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봄, 지리산 자락에서 만난 큰오색딱따구리와 인연 때문이었

다.

큰오색딱따구리가 동지를 완성하고, 알을 낳아 품고, 먹이를 날라 새끼를 키우내는 과정 전체를 관찰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를 세상에 펴내면서 우리나라 새의 생태에 빠져들게 된다.

책에는 사계절에 걸쳐서 우리 숲에서 만났던 새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봄, 푸르름이 더욱 짙어지는 여름, 단풍빛이 고운 가을, 흰 눈이 내리는 겨울, 모두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다니며 만났던 새에 관한 삶이 담겨 있다.

봄에는 등고비, 까막딱따구리, 동박새, 오목눈이, 원앙, 큰소쩍새 등 텃새들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지 못해 은밀한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 물총새, 노랑할미새를 비롯 숲의 요정인 팔색조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가을에는 예전에는 텃새였지만 지금은 철새가 된 황새의 안타까운 사연과 더불어 출치기늑사의 원조 물수리를 만날 수 있다.

겨울은 늦가을부터 찾아드는 겨울철새들이 온전히 자리 잡는 계절이다. 오리와 기러기, 두루미, 참수리와 수리 등 우리나라에 머무는 새들을 볼 수 있다.

〈지성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누구나 쉽게 범하는 글쓰기 오류



품격 있는 글쓰기

김세중 지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국어=맞춤법’이라는 등식이 자리하고 있다. 맞춤법만 잘 지키면 좋은 글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맞춤법은 국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일 뿐이고 다른 더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이 맞춤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교과서 문장에 문제가 많거나 문화재 안내판의 문구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문법에 맞지 않다든지 뜻이 모호하다는

지 하는 내용이다.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쓴 글도 이렇도나 일반 국민의 글쓰기 실력은 더 우려할 만하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활장을 지낸 김세중 씨가 펴낸 ‘품격 있는 글쓰기’는 누구나 쉽게 범하는 글쓰기 오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맞춤법은 한눈에 맞고 틀리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맞춤법뿐 아니라 의미가 명료한가, 문법적으로 반듯한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매끄러운가 등은 쉽게 눈에 띄지 않기에 틀리고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흔하다. 언제부터인가 대중 뜻만 통하면 되는 문제 삼지 않는 풍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제 기사는 책이든 개인의 글이든 한국어 문장이 좀 더 다듬어지고 명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푸른길·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폭군 이야기

월러 뉴웰 지음



현재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권불오년(權不五年)’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재의 결정은 신뢰를 잃는 권력은 언제라도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권불이년, 권불삼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권력을 쥐게 되면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정과 독재는 언제나 존재해왔던 정치 행위의 일부였다. 월러 뉴웰 칼턴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모든 권력자는 잠재적인 폭군이다”고 본다. ‘폭군 이야기’는 3000년 인류 정치사로 파헤친 민주주의 역설을 풀어낸다.

저자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의 전부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폭정의 범주에 든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행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대중을 호도하면서 잡힌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제반 행위가 넓은 의미의 폭정이라는 것이다(이런 관점



지난해 11월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열었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했다. 〈광주일보 DB〉

에서 보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은 ‘폭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뉴웰 교수는 폭군 내지는 폭정을 통해 ‘권력’과 ‘불의’ 그리고 ‘분노’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본다. 한마디로 책은 3000년 인류 정치사를 관통해온 ‘뒤틀린 정’에 관한 추적이자, 나아가 동일한 불행의 이미지를 배제하고 있다. 논의의 여지가 없는 ‘용포하고 나쁜’ 인물과 행위는 제외하고 역사적 측면에서 호불호의 측면을 지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폭정의 유형을 ‘전형적’, ‘개혁형’, ‘영원불멸형’으로 분류한다.

‘전형적’ 폭군은 국가와 사회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자신과 혈족, 측근들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다. 드물지 않게 국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국가라는 재산의 주인이라고 여기기에 책임

감이 투철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자다. 시라쿠사의 히에로 1세와 로마의 네로 황제,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 니카라과의 소모사 부자(父子), 아이티 공화국의 뒤발리에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개혁형’ 폭군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면서 존경한다. 그래서 폭군이 아니라 국민의 훌륭한 대표자로 인식되는데,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으로 국가 개조를 시도한다. 그러나 공공의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고 합법을 위장해 권력을 독점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랑스 루이 14세와 나폴레옹 1세 등이 해당한다.

‘영원불멸형’ 폭군은 가장 위험하면서 또 복잡한 유형이다. 이들은 영원불멸의

새로운 왕국을 원하며 그 너머의 세상까지 꿈꾼다. 국민에게 하나의 뜻만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세뇌’는 필수다. 프랑스의 자코뱅파, 볼셰비키의 스탈린, 나치의 히틀러, 캄보디아 폴포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꼽힌다.

책은 폭정의 역사로 보는 ‘정치사상사’이기도 하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 수많은 사상가들의 생각이 현실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핀다.

한편 뉴웰 교수는 “민주주의가 쉽게 걸리는 기억 상실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신을 보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체제의 가장 강력한 적인 ‘폭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문아카이브·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윤패하고 개성 넘치는 불타는 중년들의 이야기



수요일에 하자

이광재 지음

전봉준과 이름 없는 백성들의 뜨거운 외침을 소재로 2015년 제5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이광재 작가가 신작 장편을 펴냈다. 오늘을 사는 뜨거운 중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수요일에 하자’는 윤패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위안부·친일파·이승만... 왜곡된 역사 이슈 반박



심용환의 역사토크

심용환 지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역사 대중서로 주목받고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CBS 근현대사 토크로 보기’, ‘아짜다 어론’ 등 언론과 방송에서 총횡무진하고 있는 심용환의 역사 토크가 책으로 나왔다. 근현대사 ‘역사 전쟁’의 핵심 쟁점인

위안부, 친일파,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박정희, 부패된 고대사를 모두 다루되, 독자들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화로 구성해 쉽고 입체적으로 읽힐 수 있게 했다.

저자는 편하게 읽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약의를 갖고 역사 왜곡을 감행하는 이들을 물리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전한다. “더 많은 토론과 대화가 이어져서 다양한 역사 지식이 세상에 소용돌이칠 때, 그래서 다시는 역사가 퇴보하지 않고 질적 진보가 있기를 소망한다” 〈휴머니스트·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온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